

경제산업성은 ‘연료정제시에 발생하는 경유와 가솔린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삭감에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메이커는 개발 여력이 있어도,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독일 자동차메이커 일본에 디젤차 투입전략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는 적극적으로 투입추진 중이나, BMW는 일본 국내수요 등의 이유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우디재팬은 올해 하반기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초대비 경기변화 등의 원인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으며, 폭스바겐그룹재팬은 2009년 도입예정이고, 벤츠재팬은 2008년내에 디젤 SUV를 출시 예정이다.

<자료원> 아사히신문, 유니치신문, 일간공업신문, 닛산자동차 홈페이지 등

Carbon Trust사, Carbon Trust사를 통한 탄소관리전략 컨설팅

Carbon Trust사는 기후변화의 위협과 저탄소배출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2001년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여 지금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다

2001년부터 세인즈버리즈(리테일), 부츠(제약), BAA(항공), Ford(자동차) 등이 컨설팅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포드의 경우 지난 4년간 25%의 에너지사용을 줄였으며 DML 그룹(건설·조선)은 13%의 가스사용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3,8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한 효과와 같다.

특히 Carbon Trust사는 매년 수 천개의 현지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만이 아닌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20% 정도의 에너지비용 지출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Carbon Trust는 저탄소 빌딩, 동식물 폐기물 에너지 연구 등 다양한 저탄소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저탄소제품과 새로운 에너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arbon Trust의 Marine Energy Accelerator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상품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 작동, 유지 비용 절감을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환경전문 기업투자기관이 컨설팅 함으로써 탄소배출감소와 기업이익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지원을 적극 수행하여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시 환경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경관련 중소기업들의 영국 내 법인 설립시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